

1907년 기독교 대부흥운동의 역사적 고찰

The Historical Review of Christian Revival Movement
at Pyung Yang in 1907

오흥철

I. 서론

II. 1907년 기독교 대부흥운동의 시대적 배경

1. 정치적 배경
2. 사회경제적 배경: 평안도 지방을 중심으로
3. 종교적 배경
4. 기독교적 배경

III. 대부흥운동의 전개와 결과

1. 대부흥운동의 발단
2. 1907년 평양 부흥사경회의 전개과정
3. 평양사경회 이후의 부흥운동

IV. 대부흥운동의 영향

1.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2. 비정치화의 여부에 대한 문제
3. 1900년대의 민족운동과 대부흥운동
4. 1900년대의 독립운동과 대부흥운동

V. 결론

Abstract

This thesis is to explore historical review on Christian Grand Revival Movement(hereinafter referred as “grand revival movement”) occurred at Pyung Yang, in 1907. For this purpose, I summarized existing study findings on grand revival movement including outcome of Christian theology academic society and that of Korean history academic society. I tried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grand revival movement by exploring both from non-christian point of view such as, difficult political situation, socio-economic realities in Pyungan-do region where grand revival movement was strongly and widely launched, transition process of existing religions in Korea, and its effect on propagation of Christianity, and from christian point of view such as enthusiasm of Korean on bible, the theology of missionaries related to grand revival movement and Bible class. Based on this, I summarized the progress of grand revival movement occurred at Pyung Yang in 1907 in accordance with passage of time, focusing on the message propagated during grand revival movement as well as its meanings. In addition, I explored the effect of grand revival movement on Christian church and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n people, focusing on the type of change inside church and the question of whether those who participated in grand revival movement also participated in independence movement. With this investigation, several questions can be solved including the background of rapid growth of Korean Christianity, how Korean people responded to sufferings of Korean people, namely colonization, in terms of christian, and why they responded that way.

I. 서론

한국에 기독교¹⁾가 들어와서 100여 년만에 큰 성장을 이루었다.²⁾ 이는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겨지나 그중 하나가 사경회라는 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한편 한국 기독교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구국운동을 펼 수 있었던 것은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의 사경회를 전후한 기독교 대부흥운동을 통한 신앙성숙으로 가능하였다고 한다.³⁾

이러한 까닭으로 말미암아 본고의 주제인 1907년의 기독교 대부흥운동(이하, 대부흥운동으로 약칭)은 기독교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들였다. 그런데 이러한 대부흥운동이 기독교 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1907년 이후의 상황에서 한국 민족운동 및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⁴⁾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⁵⁾이 대립하고 있다. 대체로 기독교 신학자들의 저술에서는 대부흥운동이 그 이후 민족운동 및 독립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하는 반면, 일부 기독교 신학자와 한국사학자⁶⁾들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들을 유념하며 대부흥운동의 역사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어진 것은 대부흥운동의 시대적 배경, 전개와 결과 및 그 영향이다. 이중 필자가 중점을 둔 것은 당시의 시대상, 대부흥운동의 진원지라 할 평안도 지방의 사회경제적 상황, 한국인들의 성경에 대한 열기,⁷⁾ 기독교 선교사들의 신학, 길선주 목사의 활동과 메시지, 대부흥운동의 성격 규명, 대부흥운동이 교회에 미친 영향,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 등이다. 특히 비정치화라는 용어에 대한 분석 및 대부흥운동의 참여계층이라 여겨지는 이들의 활약상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⁸⁾ 이로 말미암아 한국 기독교의 변화가 한국교회 및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II. 1907년 기독교 대부흥운동의 시대적 배경

1. 정치적 배경

대부흥운동의 기독교 외적 배경을 살필 때 그중 정치적 배경으로 조선 말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 원인이 된 세도정치(勢道政治) 기간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전의 봉당(朋黨) 정치가 세도정치 시기에 들어서서 외척이 정치에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견제세력이 없어지게 되자⁹⁾ 여러 민폐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백성들의 민란으로¹⁰⁾ 국가기강이 문란해졌으며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는 영정조 때의 학문의 꽃을 말살시킨 결과를 가져와¹¹⁾ 발전이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시대착오적 쇄국정책¹²⁾으로 말미암아 외국과의 교섭은 물론 외국의 학문을 연구하는 것조차 매국시되어 국력을 기를 수 없었다.¹³⁾

이러한 상황에서의 개항으로 자원들의 해외유출과 동시에 백성들이 외국 상인들 특히 일본상인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며,¹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난 동학농민전쟁이 일본군에 의하여 실패하고 청일전쟁이 이후에 벌어져 우리의 많은 자원들이 훼손되었다. 여기에 우리를

침략하고자 하였던 일본은 러·일전쟁을 일으켜 승리하였고, 그 와중에서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¹⁵⁾으로 외교권이 일본에게 넘겨져 1905년 이후는 우리의 국권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었다.

2. 사회경제적 배경: 평안도 지방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부흥운동의 진원지인 평안도 지역의 특징을 살필 필요가 있다.¹⁶⁾ 이는 대부흥운동이 가장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 평안도이기 때문이다. 이것의 원인은 조선 초기의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대우로부터 시작된다. 태조 이성계는 한반도 북방에서 여진족의 신의가 부족함을 알았고 이로 인해 북부지역 사람들을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게 하였다.¹⁷⁾ 여기에서 조선 전시대에 걸친 평안도 지역민의 '푸대접'이 이루어진다.¹⁸⁾ 과거에 합격한 사람은 많은데 반하여 벼슬길에 오른 자는 극소수였다.¹⁹⁾ 따라서 타지역에 비하여 두터운 '자립적 중산층'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자영농이나 상인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근대적 상공업자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평안도 지방의 풍부한 지하자원의 개발로 말미암아 이 지역 경제가 풍요롭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이 근대적 시민의식을 발달하게 하였고 여기에 중국과의 지리적 요건으로 신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으며 이로 인해 기독교에 접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그들은 기독교가 평등사상을 가지고 있고 강대한 서양세력의 정신적 지주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보고 개종하는 자들도 있었다. 특히 이 지역 사람들은 한문까지 배워 문맹율이 낮았고 경제적 조건으로 보아도 남부지역 사람들보다 사정이 좋아 봉사자들이 어

려움을 겪지 않았다.²⁰⁾ 또한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교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확대되어 마을 사람들의 집단적인 개종도 있었다.²¹⁾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평안도의 기독교는 성장할 수 있었고 1907년을 전후한 기독교 대부흥운동이 평안도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다.

3. 종교적 배경

대부흥운동에 대하여 살필 때 기존 종교의 무력함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는 주자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주자학은 지나치게 논리를 추구하여²²⁾ 조선에 들어와서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다. 현세 중심의 현실주의로 인한 선비들의 출세지향, 이기적 가족중심주의로 인한 개인의 창의성 박탈, 체면과 형식의 중시, 지나친 효의 강조로 인한 보수적 권위의식 등으로 주자학은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다.²³⁾ 그러나 이것은 또한 기독교의 교리와 성경탐독, 깊은 신앙심과 복종, 교회의 조직참여 등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²⁴⁾

불교는 조선시대 이전에는 호국불교(護國佛敎)라 하여 상당히 발전하였으나 조선 초기에 탄압을 받았다. 이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계속 존속할 수가 있었는데 유교가 종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불교 나름대로의 소극성 때문이었다. 이러한 불교의 타계주의적 신앙은 기독교가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한문 성경에 불교의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기독교 전파에 큰 역할을 감당하였고 불교의 선의 추구하고 진리탐구 등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전파와 부

흥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다.²⁵⁾ 그러나 현세의 중요성을 잊게 만들어 진정한 교회발전에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샤머니즘은 한국인과 같이 성장한 민속종교로 초자연적 존재인 '하느님'을 주신으로 믿고 있었다. 그후 기독교가 전래되었는데 이때 선교사들이 믿던 '하나님'이 샤머니즘의 주신인 '하느님'도 다스리시는 것으로 인식하여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이는 교회부흥과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신앙확립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주술적 기복신앙, 윤리적 요소 결핍 등으로 인해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해와 교회발전에 악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²⁶⁾

동학은 최제우가 서학(천주교)에 반대하여 세운 종교로 여러 모습으로 천주교와 반목을 거듭하여 왔다.²⁷⁾ 그러나 이들은 동학농민전쟁 제2차 봉기 때부터 우리의 최대의 적이 일제임을 간파하고 나서는 일제타도를 외치게 되었고,²⁸⁾ 전봉준 자신이 심문받는 과정에서 외국인을 쫓아낼 의사는 없었다 밝히고 있다.²⁹⁾ 물론 기독교의 세력이 강하게 퍼지고 있던 서북지방에서의 동학도들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없지 않았고 천주교의 교폐문제³⁰⁾에 대한 동학도들의 반발로 천주교가 수난을 당하기는 하였으나,³¹⁾ 동학도들이 미국인 선교사³²⁾에게 도움을 받은 일이 있고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자유의 관념'을 가르침으로 인해 동학교도들이 기독교 믿음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동학과 기독교의 교리가 비슷하여 많은 동학교도들이 기독교에 입교할 수 있었다.

천주교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 의하여 학문적으로 소개된 뒤 그것이 신앙으로 변하여 지속되었다. 초기의 신도들은 여러 교리서 등을 갖고 들어와 선교하였으나 조상제례 문제³³⁾와 서양선박 청원 문제³⁴⁾로

말미암아 환란을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사상의 주창 등으로 중언충과 부녀자에게 쉽게 뿌리내려 여기에서 생겨난 신도들이 기독교 복음의 이해와 선교활동의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³⁵⁾ 그러나 지나친 기독교와의 선교활동의 경쟁은 양자의 반목을 불러오게 되고 여기에 양대인(洋大人) 의식을 지닌 천주교인들이 가세하여 두 종교간에 반목이 계속되었다.³⁶⁾

4. 기독교적 배경

한국교회 성장의 첫째 요인은 성경에 대한 애착이다. 이는 대부흥운동이 성경읽기 모임인 사경회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부터 성경에 대한 애착이 시작된다. 최초의 한글 성경은 로스 역(Ross Version)으로 순 한글로 쓰여졌다.³⁷⁾ 이 성경은 널리 보급되었으며 많은 개종자를 가져왔다. 이로 말미암아 '성경 기독교'의 전통이 수립되었다.³⁸⁾ 이외에도 이수정의 번역³⁹⁾ 등이 있었다. 외국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성경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강하였다고 한다.⁴⁰⁾ 이러한 열정을 선교 개시 6년만에 작성된 선교보고서는 '간절한 요구' (crying need)⁴¹⁾라는 표현으로 전하고 있다.

이러한 성경에의 열정 가운데는 권서(勸書)가 있었다.⁴²⁾ 이들은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들로 기독교를 전하면서 선교사와 일반 백성들 사이의 완충역할을 담당하였고 한국 기독교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백성들이 이들로부터 얻은 성경을 공부하고자 모인 것이 사경회이다.⁴³⁾ 이는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열렸는데 교육 내용은 성경 말씀과 농사짓기에 도움되는 일반지식 등을 배웠으며 전도와 부흥집회가 같

이 이루어졌다. 흔히 이 사경회에서의 부흥집회는 내세론을 강조하여 기독교의 민족 종교화에 저해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⁴⁴⁾ 기독교 성경의 계시록은 내세론을 강조한 부분으로 유명한데, 이를 끝부분만 살펴보면 피안적인 내용이기에는 하나 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 뒤의 결과가 영광스런 천국이라는 내용이다. 또한 실제로 사경회에서는 현실에서 잘살아야 영원한 즐거운 내세가 있다고 가르쳤다. 참고로 1907년에 발간된 주일학교 교본에서는 일본과 애굽(이집트)을 동렬에 놓고 설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독립의식을 고취시켰다.⁴⁵⁾ 그리고 105인 사건과 3.1운동에의 많은 기독교인의 참여⁴⁶⁾는 사경회의 역할을 암시해 준다. 곧 성경공부를 통하여 신앙의 기초를 심어주면서 민족의식을 심어준 것이었다. 결국 성경에 대한 열정이 한국교회 부흥의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외국인(특히 미국인) 선교사들의 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제 1·2차 대각성운동⁴⁷⁾이 일어나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에 대한 열정이 발생한 가운데 각 선교단체들이 해외 선교에 나섰다. 초기에는 중국과 일본에 치우쳤으나 마침내는 한국에도 선교사가 파송되기에 이르렀다.⁴⁸⁾ 이들의 신학은 종래 철저한 청교도적 신앙이라 규정되어져 왔다.⁴⁹⁾ 그러나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은 청교도적 내지 전천년설⁵⁰⁾의 배경을 가졌으나 이들이 그러한 신학사상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한국에서 병원과 학교를 세워 장기적 선교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⁵¹⁾과 1905년 〈한국복음주의선교회연합공의회〉를 조직할 때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교리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명칭과는 상관없는 교회를 만들 것을 결의⁵²⁾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수적이라는 데는 이의를 달 수 없다.

성경적 진리를 믿으며 경험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선교사들의 신학이라 할 수 있으며,⁵³⁾ 여기에 세계 각지의 부흥운동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부흥운동이 발생한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선교사들은 경험부족과 선교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여타 선교지의 경험이 필요하였는데 여기서 소위 네비우스(Nevius) 선교방법을 익히게 되었다. 흔히 이 네비우스 선교방법은 자전(自傳), 자치(自治), 자급(自給)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한 강조로 인식되어 왔으나⁵⁴⁾ 실은 성경연구모임이 네비우스 선교방법의 중심이며 이것의 결과가 자전, 자치, 자급의 세 가지 원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것 역시 성경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고 사경회의 바탕이 될 수 있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큰 성장을 이루었다.⁵⁵⁾ 그러나 자주적인 교회로 성장하지는 못하였다는 의견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교인들의 입교동기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때에 자주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치리권까지 넘겨준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의 정치집단화가 우려될 수밖에 없었다.⁵⁶⁾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잘못하였다는 논리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선교사들은 민족운동을 주도하던 교인들을 정비하는 등의 조치로서⁵⁷⁾ 민족운동에 제동을 걸기에 이른다. 그리고 부흥회의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배경들이 선교사 개인들의 문제와 맞물려 부흥집회를 열게 되었고 여기에 성경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기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다.

Ⅲ. 대부흥운동의 전개와 결과

1. 대부흥운동의 발단

대부흥운동을 전후한 시기의 국제정세는 조선의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를 묵인하는 것이었다.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더욱 울분에 싸여 있었던 시기였고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도 항일운동에 뛰어들게 된다.⁵⁸⁾ 이를 지켜 본 선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교회가 멸절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리하여 독립운동에 제동을 거는 정책을 펴게 된다. 1901년의 ‘교회와 정부 사이에 교제할 몇 가지 조건’⁵⁹⁾을 비롯한 조치들이 선교사들이 민족운동을 저지한 대표적 예일 것이며, 을사조약 이후 한국을 한국인보다 더 사랑하였던 게일(J.S.Gale)도 항일운동에 대하여 ‘위조 애국의 미친 광란’⁶⁰⁾이라는 표현으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는 하였으나 마침내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1903년 선교사 하디(R.A.Hardie)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하디 선교사는 열심히 전도하였으나 여러 가지의 자신과 생활환경이 만든 악조건 등으로 인해 ‘양떼를 거두는 데’ 실패하고 실의에 빠져 있었다.⁶¹⁾ 그런 가운데 1903년 감리교 선교부 선교사들과 기도하던 중에 하디 선교사는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함으로 회개하였다. 이는 그에게는 ‘고통스럽고 모욕적인 경험’⁶²⁾이었으나 이러한 솔직한 고백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한국교인들이 감화되고 은혜를 체험하였다 한다. 여기에서 일어난 불길은 평양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영국 웨일즈 지방과 인도 카시아 지방의 부흥운동의 소식⁶³⁾을 뉴욕의 존슨 목사로부터 들은 교인

들은 그들도 은혜를 받고자 갈구하게 되었다.⁶⁴⁾ 이로 말미암아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장로가 인도하는 새벽기도회가 연일 계속되었다.⁶⁵⁾ 이는 국가적 위기로 인해 사람들이 복음전도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회 자체에서 독립된 조선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성령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느꼈기에 기도의 불길이 쉽게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새벽기도회는 부흥운동의 원인이 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어 내려왔던 것이었다.⁶⁶⁾

한편 1904년 서울에서 하디 선교사가 인도하는 부흥집회가 최병헌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던 정동교회에서 열렸다.⁶⁷⁾ 그런데 이 서울에서의 부흥집회는 민족구국운동에 앞장섰던 최병헌 목사, 전덕기 목사 등이 주축이 되었고 평양 부흥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데서 큰 의의를 지닌다.⁶⁸⁾ 그리고 1906년 목포에서도 부흥이 일어나 남감리교 소속인 저다인(Jerdine) 목사의 사경회 인도에서 참회와 기쁨이 흘러나왔다 한다.⁶⁹⁾ 그뒤 1907년 1월의 동기사경회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렸다. 이러한 부흥회에 대해서는 대한매일신보의 다음 보도가 있다.

음력 11월 20일 경에 평양 야소 교회당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할제 황평 랑도의 일반 교인들이 구름궤치 모혔는디 그 시에 착훈 사업에 경영이 만하 회당교회는 익익 왕성하다 하더라.

그런데 저녁집회는 특별한 전도 설교에 집중되었다. 여기에서 대부분 흥운동이 평양 장대현교회의 사경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 1907년 평양 부흥사경회의 전개과정

부흥사경회는 부르짖음의 시간이며 여기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 진정한 부흥사경회란 있을 수 없다.⁷¹⁾ 따라서 부흥사경회를 선교사가 조작했다느니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기존의 시각에는 문제점이 있다.⁷²⁾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 동기사경회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1907년 대부흥운동이라 부르는 이 동기사경회는 길선주 장로의 인도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는 서울을 방문하고 평양에 온 Johnson 선교사의 주일예배 설교를 듣고 부흥회를 열 것을 결심하였다. 그래서 담임 목사였던 이길함(Graham Lee) 선교사와 상의하여 동기사경회가 1907년 1월 6일(양력)에 시작되었다. 이때 길선주 장로가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충격에 떨며 은혜를 받았는데 참석자인 장대현교회의 정익로 장로는 당시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날 밤 길선주 목사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순결과 성결로 불붙은 얼굴이었다. 그는 길 목사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는 눈이 소경이어서 나를 보지 못하였을 터이나 나는 그의 앞에서 도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놓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어 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다.⁷³⁾

이러한 집회는 계속되었고 그뒤 ‘성령을 영접하라,’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등의 설교를 통하여 은혜가 임하였다. 1월 12일 블레어(Blair)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⁷⁴⁾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였다. 1월 13일 집회에도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으나 그때는 조금은 무미한 듯하였고⁷⁵⁾ 1월 14일 이길함 선교사의 집회에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한 여 선교사는 당시의 상황을 '그것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열어 제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하였다.⁷⁶⁾ 이를 보더라도 회개의 물결이 격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월 15일에는 점심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저녁에 블레어 선교사를 미워했다는 고백이 한 한국인 성도에 의하여 나오면서 은혜가 감돌고 이길함 선교사의 '나의 아버지여!'라는 고백이 있자마자 은혜가 임하였다 하는데 이를 경험했던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 비상한 힘이 밖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와 온 회중을 사로잡은 듯하였다. ... 각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의 죄가 자기생활에 정죄판결을 선언하여 주는 느낌을 가지게 하였다. ... 저녁 여덟시부터 이튿날 다섯시까지 이러한 상태는 계속되었다. ...⁷⁷⁾

이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로써 동기사경회는 마치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간 사람들은 고백만으로 그치지 않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구별없이 자신이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해주었기에 성안에 소문이 자자했다고 한다.⁷⁸⁾

사실 처음에 선교사들은 감정에 치우친 회개를 우려하였으나 부흥

회를 지켜본 이들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임을 알았다. 대부흥운동을 지켜본 영국의 세실 경은 웨슬레의 부흥운동에 내린 성령의 역사와 유사하다 하였고⁷⁹⁾ 이외에도 평양사경회가 진정한 부흥운동이었음을 여러 사람들이 전하고 있다.

3. 평양사경회 이후의 부흥운동

이러한 장대현교회의 사경회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부흥집회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어 평양사경회에서 ‘성령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이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길선주 장로는 서울로 떠나게 되는데, 이때가 2월 16일이었다. 서울의 중앙교회(지금의 숭동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사회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었고 부흥의 불길은 계속 타올랐다고 한다. 클라크(C.A.Clark) 선교사는 서울 집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고 있다.

음력 명절을 준비하느라고 제각기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길 장로가 오기 전 2주일 동안 시내 각 교회는 매일 저녁 기도회를 열었다. 2월 16일 길 장로가 서울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오후 모든 교인들이 연합으로 모인 집회에서 설교하고, 밤에는 중앙교회에서 설교했다.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 다음날에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였다. 그로부터 성령의 역사는 날로 발전되었다. 둘째 날 이후부터는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사회자로서는 간신히 기회를 얻어 한마디씩 말을 했을 뿐, 회중은 죄에 대한 혐오가 폭발되고 미친 듯이 죄를 회개하여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려고 몸부림쳤다. 그들의 심령은 불타 오르기 시작했다.⁸⁰⁾

이외에도 서울의 여러 교회에서도 부흥의 불길은 다시 타올랐다. 그는 또한 의주로 가서 11월 27일부터 집회를 인도하였고, 여기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다. 특기할 것은 최재형이라는 열세살 난 소학생(지금의 초등학생)이 죄를 통회하고 주님께 몸을 바치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훗날 그는 목사가 되어 일생을 주님께 바쳤다.⁸¹⁾ 이외에도 이길함 선교사는 선천, 소알론은 광주로, 헌트는 대구로 가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⁸²⁾

한편 학생들에게도 부흥의 물결이 몰아쳐 숭덕학교의 김찬성의 인도로 3백여 학생들이 죄를 뉘우쳤으며, 채정민 목사의 인도로 감리교계 학생들에게도 부흥의 열기가 타올라 이들에 의한 전도운동이 전개되었다.⁸³⁾ 또한 숭실대학에도 부흥의 물결이 타올랐다 한다.⁸⁴⁾ 그런데 이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집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사실 감리교 학생들은 처음에는 장로교 학생들에 비하여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가 감리교 교역자의 회개로 혼란이 진정된 뒤 은혜가 내렸다 한다.⁸⁵⁾ 또한 신학교에도 부흥의 물결이 몰아쳤는데 3개월의 수업기간 매일 저녁 부흥집회를 갖기로 하고 실행하였고 이때에도 성령이 임하여 회개가 이루어졌다 한다.⁸⁶⁾

그리고 대부흥운동은 중국교회에까지도 영향을 주었다. 한국의 대부흥운동을 체험한 고포드(Gorforth) 선교사와 장사정(張賜禎), 호만성(胡万成), 유금악(劉金岳)이 중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켜 교회 갱신과 성장에 기여하였다. 이는 1910년까지 계속되어 몽고와 북경지방에까지 확산되었다. 이것은 1880년대 중국을 통하여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한국이 30여년 만에 성숙된 교회로서 신앙운동을 역으로 되돌려 보낸 획기적인 사건이었다.⁸⁷⁾

지금까지 대부흥운동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았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흥운동의 영향을 살피기에 앞서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이는 영적이며 도덕적인 개혁운동이었다. 이는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였으며 또한 실생활의 회개가 일어났기에 그러한 것이다.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더욱 뜨거운 성령운동이 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둘째로 교회연합 운동의 양상을 띠었다. 이는 선교사들과 한국인 신자들 사이의 화해와 국내에 있던 각 교파들 간의 연합 움직임이었다. 사실 대부흥운동 이전에는 선교사들과 한국인 신자들 사이에 서로간의 이해가 부족하였다. 그것은 문화의 차이와 아울러 특히 '교회와 정치' 관계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였다. 그렇지만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있어서의 동서양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각지에서 부흥운동은 연합집회의 성격이 짙었다. 그후의 여러 집회도 비록 교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연합으로 모였고 이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은사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⁸⁹⁾

IV. 대부흥운동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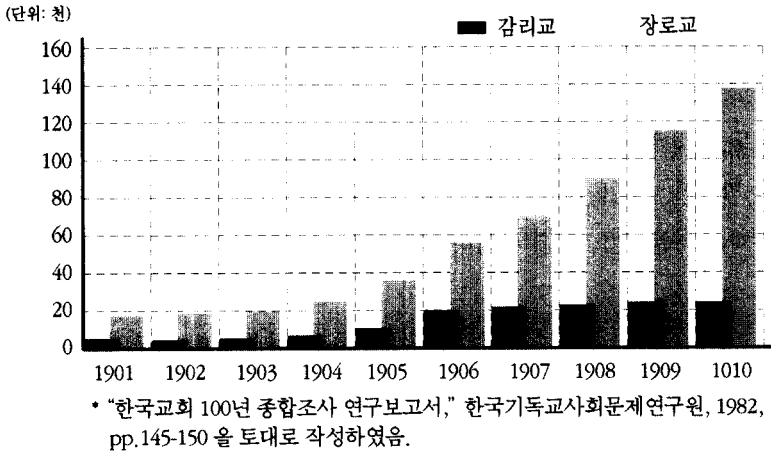
1.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한국교회는 초창기에는 상류계층을 전도하는 데 힘썼으나 동학농민전쟁 이후 전래 초기의 백성들의 박해를 이겨내며⁹⁰⁾ 백성들을 위한 중

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그리고 새벽기도회와 사경회가 지속되었고 을사늑약 때 구국기도회와 각종 의거들을 통하여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로의 면모를 보여왔다.⁹⁰⁾ 이러한 것이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변화되고 강화되었다.⁹¹⁾ 기독교가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을 지키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⁹²⁾에서는 한국 기독교사가 이어지고 전해지는 한 불멸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흔히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교세가 늘었다 하고 그 증거로서 교회 출석자의 증가를 드는 경우가 많다.⁹³⁾ 물론 부흥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인원의 측면에서 놀라운 성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부흥회는 단순한 1907년의 행사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부흥운동이 사경회의 일환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신도 수의 성장을 다룬 그래프를 보면 1900년에서 1910년 사이에는 급격한 신도 수 성장이 나타난다.⁹⁴⁾ 그러나 대부흥운동의 절정이라 할 1907년 이후에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사실이나 1907년의 부흥운동이 사경회의 일환이었음을 이해한다면 사경회가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라 짐작할 수 있다.⁹⁵⁾ 그러나 1907년의 대부흥 이후 감리교는 신도가 잠시 줄어들기도 한다.⁹⁶⁾ 그렇다고 해서 1907년 대부흥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성장은 단순히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신앙심의 성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07년의 대부흥을 기점으로 하여 강력한 회개가 일어났을 뿐 아니라 신앙의 동기가 이전에는 현세적인 안락을 위하여 입교한 경우가 많았는데 1907년을 전후하여 내세를 바라보며 현세를 열심히 사는 신앙형태로 전환되어 그것이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1907년 기독교 대부흥운동의 역사적 고찰 / 오홍철



〈도표1〉 1900년대 장로교와 감리교 성장의 비교

년 도	입교인수	학습인수	합 계	증 가	금 년 세례인	지 방 전도인	주일학교	임원과 학생수	기부금
1901	940	3820	4768	871	580	15	40	1695	2910
1902	1206	4550	5855	1087	1005	15	47	2635	3229
1903	1616	5299	8985	1060	1066	19	61	1323	4309
1905	2457	5339	7796	811	1234	33	76	4622	7201
1906	2810	9981	12791	4995	1822	34	116	8943	13164
1907	3885	19570	23445	10664	3553	35	154	12333	27018
1908	5998	18946	24244	789	1524	84	167	14417	21120
1909	6251	16992	23243	-	4774	57	230	22862	66714
1910	6500	18134	24724	1481	2275	76	259	25711	37904

* 『미감리회 조선연회보』(1920년도)에 의함.

〈도표 2〉 미국 감리교 누년 통계표(1901 - 1910)

한편 선교사들과 한국인 성도들은 그들의 문화의 차이로 말미암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충돌을 가져온 적이 있다. 특히 민족운동을 보는 선교사들의 시각이 1905년을 전후하여 바뀌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부흥운동을 통하여 선교사 자신들의 회개와⁷⁹⁾ 성도들의 회개가 있었다. 여기에 대부흥운동때 전파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변화의 계기를 주는데, 이는 교회 안의 부조화 문제를 다룬 것으로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공동체인 교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공동체 의식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회의 교단 조직으로의 발달이 이루어져 1907년에 장로교 독로회가 조직되고 한국교회 지도부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성직에 몸담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많아졌고 여기에 각 교파들이 한국인 성직자 양성을 본격화하여 그 배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본격적 치리조직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각 교단의 신학수업자들이 배출되었고 이들은 각 교회에서 성직자로 봉사하면서 지도권을 인수받기 시작하여 민족교회로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⁸⁰⁾ 그런데 공동체적인 신앙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파가 따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선교사들이 한국교회가 단일교회로 발전할 경우 정치화의 노정으로 쉽게 흐를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파교회가 구현되었으나 각 교파간의 연합운동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신앙목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한국 기독교의 성장요인은 기독교를 나라 발전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 중요한 이유중 하나라 할 수 있다.⁸¹⁾ 그러나 계속된 사경회와 새벽기도는 신도들에게 진정한 신앙을 가르쳐 주었다. 죄의 회개와 윤

리적 생활이 강조되었다. 현세에 굴복하는 교회로 발전한 것이 아닌 현세를 바탕으로 내세를 바라보는 의식이 형성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대부흥운동 이후의 항일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2. 비정치화의 여부에 대한 문제

대부흥운동이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는 그것이 긍정적이었다는 의견¹⁰⁰⁾과 부정적이었다는 의견¹⁰¹⁾이 대립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비정치화의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비정치화라는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면 이는 정치에 무관심해졌다는 말이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어떤 사건 이전에는 정치적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가 그 사건 이후에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었으면 그 사건을 통하여 비정치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대부흥운동에 적용할 때, 혹자의 주장대로 대부흥운동이 비정치화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려면 대부흥운동 이전에는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가 대부흥운동 이후에는 관심이 줄어들어야 한다. 흔히들 비민족화되었다는 증거로 내세워지는 것들 중 하나로 대부흥운동에서 활약한 길선주 목사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만 정하신 바’라 하여 교회의 항일운동을 막았다 하는데,¹⁰²⁾ 이것은 그가 항일운동을 막았다 할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없다. 그가 반대한 것은 급진적인 의병운동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항일운동의 방법인 구국기도회를 인도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¹⁰³⁾ 물론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표면적으로는 일제에 대한 적대 의식이 사라진다.¹⁰⁴⁾ 그러나 일본인을 미워하였던 것이 죄라는 고백은 있어도¹⁰⁵⁾ 민족운동 자체에 대한 죄의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¹⁰⁶⁾ 그리

고 대부흥운동에서 활동한 이들이 기독교적 정신으로 민족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또한 1907년 이후의 표면적 민족운동이 어려웠던 것은 피안적이라서가 아니라 당시의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¹⁰⁷⁾ 일제의 탄압이 심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구국기도회가 정치적 모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일제 식민지가 되지 못하게 기도하는 정치적 성향을 띤 모임이기 때문이다.¹⁰⁸⁾ 물론 이것이 형식적이었으면 의미가 없으나 기도회는 지속되었고 여기서 생겨난 애국심이 3.1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여겨지며 이로 말미암아 애국적인 민족교회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아진다. 그러므로 대부흥운동이 비정치화의 경향을 띠므로 말미암아 민족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 1900년대의 민족운동과 대부흥운동

의병운동 및 애국계몽운동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1900년대에 이루어졌으며 일제로부터의 실제적 독립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의병운동은 무력으로 외부세력인 일본과 그 배후세력을 몰아내고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¹⁰⁹⁾ 그런데 의병운동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만열은 구한말의 기독교인들이 의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¹¹⁰⁾고 주장하고 있고, 오윤태는 ‘군대를 편성하여 일본군과 싸우다가 포로가 된 사람 가운데서 주모자로 취급되어 처형된

사람이 18명인데, 그 대부분이 크리스찬이다.’¹¹¹⁾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대부흥운동과 의병운동과의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 대부흥운동 자체가 무력이라는 극단적 방법보다는 기도라는 온건한 방법으로의 독립운동을 추구하였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자료를 많이 섭렵하지 못했기에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흥운동 그 자체의 성격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부흥운동이 기독교인들의 의병운동 참여를 약화시켰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의병운동의 주체세력인 유생들과 농민들과의 항일운동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¹¹²⁾ 사실 의병운동이라는 것이 게릴라적 성격을 띠었고 기독교에 배타적인 계층들이 섞인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선교사들의 부일적 작태가 이를 부채질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애국계몽운동은 우리 자신의 힘이 일본보다 약하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전개한 민족운동이었다.¹¹³⁾ 그런데 애국계몽운동과 기독교와의 관계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 애국계몽운동이 의병운동보다 기독교 이념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나 각각에서의 기독교도의 위치가 연구된 것이 많지 않다. 기독교와 제일 관계깊은 것은 교육이라 여겨진다. 애국계몽운동으로서의 교육은 1907년의 부흥운동을 통하여 변화받은 학생들과 교사들에 의하여 계속 진행된다.¹¹⁴⁾ 여기에서의 교육이 어떠하였음은 그 이후 학생들의 행적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국채보상운동¹¹⁵⁾ 및 신민회에서의 기독교인들의 활약도 좋은 예이다. 그러나 다른 애국계몽운동의 경우에서는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

로 애국계몽운동과 대부흥운동과의 관계는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관련성이 깊다 여겨진다.

4. 1910년대의 독립운동과 대부흥운동

둘째로 1907년을 전후한 대부흥이 1910년대의 독립운동에 관계된 증거는 105인 사건과 3.1운동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가하였는데 그들의 신앙적 결단이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105인 사건은 일제가 기독교인들을 뿌리뽑기 위하여 조작한 사건이다.¹¹⁶⁾ 왜 그러하였는가? 대부흥운동 이후에도 구국기도회가 계속 될 뿐 아니라 애국계몽운동과 독립군 운동 등을 통하여 항일운동이 계속되었고 1909년의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본인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다.¹¹⁷⁾ 그리고 105인 사건의 연루자들 중 1907년의 대부흥과 관계있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이 몇몇 보이는데 평양의 대성학교, 송실학교, 선천의 신성중학교에 속한 인물이 많은 편이다. 이들 중 대성학교는 민족지도자가 세운 학교이지만 송실학교와 신성중학교는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로 대부흥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이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었기에 대부흥운동이 신민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¹¹⁸⁾ 그런데 신민회의 주도층이 교회를 이탈한 인사들이라면서 대부흥운동과 신민회와의 관계는 무관하다고 보는 주장이 있다.¹¹⁹⁾ 그러나 신민회 자체가 대부흥운동이 발생하였던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1907년에 조직되었고 애국심을 강조하였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아 대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대부흥운동에 참여했다고 여겨지는 홍성린¹²⁰⁾을 비롯

하여 길선주 목사의 아들인 길진형 등이 신민회에 가입하여 있는 것으로 보아¹²¹⁾ 대부흥운동은 신민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105인 사건 이후에 1915년 평안도에 조선국민회가 세워지는데 여기의 참여계층은 1907년을 전후한 대부흥의 영향을 받았던 평양신학교, 숭실학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 그리고 다른 기독교 신자들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부흥운동으로 인하여 민족의식이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래서 부흥운동 이후에 구국운동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²²⁾

3.1운동과 대부흥운동과의 관계는 기독교 세력에 의하여 수행되었다는 의견과 기독교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있다.¹²³⁾ 특히 최근에 진보적 입장을 띠는 학자들이 기독교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¹²⁴⁾ 여기서 흔히 논의되는 것이 길선주 목사를 비롯한 몇몇 목사들이 독립선언문 낭독 때 불참한 것을 비난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당시 상황과 길선주 목사의 평소 행동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주장이라 볼 수 있다. 길선주 목사와 3.1운동을 비롯한 민족운동과의 관계에 대하여 길선주 목사가 로마서 13장의 국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항일운동을 말렸다 하는데 그의 행적은 방법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¹²⁵⁾ 그리고 길선주 목사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평소에 구국기도회를 많이 인도하였다. 또한 3.1운동 얼마 전부터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평안도 지방의 3.1운동을 준비하였으며 서울로 떠나기 앞서 마음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독립선언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지방에서 사경회 인도를 하다가 서울로 가는 기차를 늦게 탔기 때문이다.¹²⁶⁾ 그러므로 3.1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구국기도를 인도하며 얻은 나라사랑의 정신

을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교사들이 비정치화를 목적인 행사들을 벌일 때 당시 한국인 교계 지도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굳게 세웠다. 그리하여 부분적으로 선교사들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인하여 민족주의계 평신도들과는 입장이 달랐던 것이다. 그렇다 하여 그들이 독립운동에 공헌하지 않았다 할 수는 없다. 각종 잡지들을 통하여 공동체적이고 애국적인 논설들을 설파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의 3.1운동에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였던 것이다.¹²⁷⁾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기독교인의 봉기는 제쳐두고라도, 가해자였던 일본의 기록에 ‘기독교도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식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독교인의 영향을 알 수 있고, 기독교인들이 입은 피해는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¹²⁸⁾

그렇다 하여 3.1운동 이후의 교회의 대응 태도를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교회는 일제의 불법 만행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좌절과 타협까지도 있었다. 일제의 회유에 넘어가거나 3.1운동 참여 자체를 후회하는 행동을 보인 경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¹²⁹⁾ 그러나 이러한 행적을 빌미로 3.1운동에서의 기독교인들의 활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3.1운동에 참여한 신석구 목사의 경우 처음에는 고뇌하다가 참여하였는데¹³⁰⁾ 이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3.1운동은 기독교인을 비롯한 종교인이 참여한 독립운동이며 종교운동은 아니다. 그렇다 하여 기독교를 비롯한 각 종교의 3.1운동에의 공헌은 무시될 수 없다. 그리고 대부흥운동은 3.1운동을 비롯한 구국운동에 신앙적 기초를 제공한 점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여겨진다.

V.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흥운동의 원인, 경과, 결과 등을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다루어진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부흥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대부흥운동의 역사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함을 밝혔다. 둘째로 대부흥운동의 배경에서 대부흥운동을 전후한 시기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더불어 교회 내부의 원인을 한국 기독교의 성경 기독교적인 특징과 선교사들의 신학이 보수적이며 경험적인 신학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대부흥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셋째로 대부흥운동의 전개과정을 평양 장대현교회의 부흥사경회를 중심으로 하여 일별로 선포된 메시지와 뜨거운 기도 열기에 대한 증언을 언급함으로써 1907년의 대부흥이 신앙부흥운동임을 증명하였고 이것이 각 지역의 부흥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넷째로 대부흥운동의 영향을 다루었는데, 대부흥운동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한국 정착, 교세의 변화가 크지 않음, 영적이며 내실을 기한 운동, 선교사들과 한국인 교인들 간의 화해, 신앙 속의 민족운동 정신 확립, 교회 지도부의 변화, 교파교회의 확립 등으로 기독교 교회에 미친 영향을 살폈고 비정치화의 문제, 대부흥운동과 애국계몽운동과의 관계, 105인 사건과 3.1운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대부흥운동과 이들 운동과의 관계를 참여계층의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한국교회가 대부흥운동으로 인해 애국교회가 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목적이 순수해지고 교회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신앙의 실천이 애국운동으로 표

출되었음을 알았다. 본고에서는 대부흥운동과 그 이후의 민족운동과의 관계를 다룰 때 참여계층의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였고 대부흥운동이 평안도 이외 타지역에 미친 영향과 민족운동과의 관계를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룰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맺고자 한다.

註

1. 여기에서의 '기독교'는 Protestant를 의미한다. 흔히 이를 '개신교'라 표기하나 '기독교'가 그 본래의 의미에 가깝다 여겨지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로 표시하였고 Rome Catholic은 '천주교'로 표기하였다.
2. 이만열, "세계기독교사상의 한국기독교",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1991, p. 375.
3.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3, p. 262.
4.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3; 서정민, "초기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의 이해",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종로서적, 1986.
5. 우완용, 『비운과 섭리의 민족교회사』, 목양서원, 199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988;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사강의』 2판, 한울아카데미, 1991; 노대준, "1907년 대부흥운동의 성격", 『한국기독교사연구』 15·16, 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7.
6. 일반 한국사 개설서의 서술에서는 대부흥운동을 애국계몽운동 내부의 종교운동의 한 부류로 설명하고 있다. 이기백, 『한국사신론』 신수판, 일조각, 1990;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1996.
7. 이 용어는 미 북장로교 한국선교부가 부산의 연차회의에서 한 성서공회에 대한 감사말에서 나온 용어이다.
8. 기존의 논리대로 대부흥운동과 민족운동과의 관계를 설명하면 다음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기독교인의 비기독교적 행동(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을 기독교적 행동이라고 하여 기독교 자체와 역사이해에 걸림돌이 된다. 살인

한 목사를 보고 '기독교인들은 살인자이다' 라 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대부흥운동과 민족운동과의 관계의 이해는 대부흥운동에 참여하였던 개인이나 단체가 민족운동에 어떻게 참여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이 대부흥운동과 민족운동과의 관계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로 말미암아 대부흥운동에 참여하였기에 민족의식이 생겨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는 논리를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길선주 목사와 숭실학교 졸업생의 활동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대부흥운동과 민족운동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강호제현의 질정을 바란다.

9. 이광린, 『한국사강좌』 V, 일조각, 1981, pp. 11-12.
10. 고송제, “이조말기 촌락반란운동과 촌락사회의 구조적 변화”, 『백산학보』 19, 1975, p. 154.
11. 정조 사후 집권한 세도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붙여서 정조의 개혁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을 숙청한다. 이것은 결국 영정조때의 업적이 후대에 계승되기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고 보여지기에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다. 이태진, “정조”, 『왕조의 유산』, 지식산업사, 1994, pp. 206-207.
12. 유영익, “홍선대원군”, 『한국사시민강좌』 13, 1993, p. 108.
13. 유영익, *Ibid.*, p. 112.
14. 우 윤,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창작과비평사, 1993, pp. 88-90.
15. 이 조약을 흔히 ‘을사보호조약’이라 불러 왔으나 이 조약의 본래 의미가 일제의 한국 ‘늑탈’에 있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을사늑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16. 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17. 이중환, 『擇里志』. ‘八道總論’.
18. 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op. cit.*, p. 26.
19. Edward Wagner, “Ladder of success in Yi Dynasty Korea, Paper the 19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held in Chicago, March 20-22, 1967; 이광린, 『한국개회사상연구』, 일조각, 1979, p. 291.
20. 서명원, 『한국교회성장사』, 대한기독교서회, 1966, p. 179.
21. 백낙준, *op. cit.*, p. 309ff.
22. 이범학, “송대 주자학의 성립과 발전”, 『강좌중국사』 3, 지식산업사, 1989.
23. 이훈구, “한국 전통종교와 한국교회”, 연합선교회, 1991.
24. 송인웅, “1907년의 한국교회부흥과 성장요인”, 총신대 석사학위논문, 1985, p. 11.
25. 송인웅, *op. cit.*, p. 10.

26. 이훈구, *op. cit.*, p. 97ff.
27. 서학의 조상제례 문제에 대하여 비난한 적이 있고 동학농민전쟁 때에 신부들이 화를 입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천주교 신부들은 동학의 멸절을 기뻐하였으며 황해도 동학군의 진압자인 안태국이 천주교 신봉자라는 사실로 보아 천주교와 동학의 사이가 썩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민경배, “기독교와 동학의 접촉사”, 『교회와 민족』,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pp. 173ff.
28. 우 윤,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창작과비평사, 1993, p. 232.
29. 乙未 二月 十一日 全瑋準 再招問目, 『東學亂記錄』下, p. 538.
30. 윤경로, “한국 개신교와 천주교의 역사적 관계”, 『한국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 역민사, 1992.
31. 민경배, *op. cit.*, p. 182.
32. 지금까지는 이 선교사가 누구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민경배, *Ibid.*, p. 184.
33. 주명준, “유교전통사회의 조상숭배사상과 천주교의 대응”, 『변태섭기념 사학논총』, 1985.
34. 주명준, 『천주교의 전라도 전래』, 탐구당, 1998, p. 211ff.
35. 주명준, 『전북의 기독교 전래』,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8, p. 32.
36. 신광철, 『천주교와 개신교 - 만남과 갈등의 역사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윤경로, *op. cit.*
37. 김양선, “Ross Version과 한국 Protestantism”, 『백산학보』3, 1967, p. 403.
38. 이만열 외 2인, 『대한성서공회사』 II, 대한성서공회, 1994, p. 385.
39. 『대한성서공회사』 I, 대한성서공회, 1993, p. 120ff.
40. 『대한 크리스도인 회보』 2-18(1898.5.4)
41. Annual Report of the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M.E.C. for 1891, p. 274; 이만열, “세계 기독교사상의 한국기독교”,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p. 403에서 재인용.
42. 이만열, “권서에 관한 연구”, 『동방학지』65,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0.
43. 이철신, “한국 초기 장로교의 사경회에 관한 한 연구”, 장신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6.
44. 대체로 소위 ‘진보적인’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사강의”, 한울아카데미, 1989. 등을 참조할 것.
45. W.L.Swallen, *Sunday School Lesson on the Book of Exodus*, Sesul: Religious Tract Society, 1907, p. 4; 박정신, “1920년대 개신교 지도층과 민족주의운동”, 『근대 한국과 기독교』, 민영사, 1997, p. 68에서 재인용.

46. 김승태, “종교인의 3.1운동 참여와 기독교의 역할”, 『한국기독교사연구』 25, 1989, p. 17ff.
47. 정수영, 『새교회사』 II, 1994, 규장문화사, p. 410ff.
48.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2, p. 49.
49. 박명수, “근대복음주의와 초기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1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p. 49.
50. 세상 끝날에 신자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동안 왕노릇 한다는 시기가 그리스도 재림 이후라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근본주의 신학의 중요한 특징이다.
51. Kenneth M. Wells, *New God, New Nation, Protestants and Self-Reconstruction Nationalism in Korea 1896 - 1937*,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0, pp. 39ff; 김인수, “길선주 목사의 ‘나라사랑’ 정신에 대한 고찰”, 『술내민경배교수회갑기념 한국교회사논총』, p. 106에서 재인용.
52. 박명수, *op. cit.*, p. 49.
53. *Ibid.*, p. 61.
54. Underwood, 이광린 역, 『한국개신교수용사』, 1989, 일조각, p. 91.
55. 박용규, *op. cit.*, p. 110ff.
56. 김영재, 『한국교회사』, 개혁주의신행협회, 1992, p. 99.
57. <그리스도 신문> 6-21(1902.5.22)
58. 성백걸, “한국 초기 개신교인들의 교회와 국가 이해”, 『한국기독교사연구』 21, 1988, p. 4ff.
59. <그리스도 신문> 5-40(1901.10.3)
60. J.S.Gale, *Korea in Transition*, 1909, pp. 13-14; 이만열 외,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p. 238에서 재인용.
61. *Methodist Church South Report for 1905*, pp. 39-44; 백낙중, *op. cit.*, p. 384에서 재인용.
62. Annual Report of M.E.C.S(1904), p. 23; 안병동, “1907년 대부흥운동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연구”, p. 22에서 재인용.
63. W.D Rynolds, “영국 웨일즈, 인도, 조선 세곳의 부흥연결”, 『신학지남』 80, 1935/3; 박노춘, “1907년 한국부흥운동 고찰”, 총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 11에서 재인용.
64. Graham Lee,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Korea Mission Field*(이후 K.M.F.로 약칭), Vol 3, No.3(1907.3), p. 33.
65. 길진경, *op. cit.*, p. 121.

66. 이만열, “세계 기독교사상의 한국기독교”,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1991, p. 405.
67. The Korea Methodist Vol. I, 10, Dec. 1904, p. 12; 노종해, 『한국감리교사의 새시각』, 풍만, 1988, p. 141에서 재인용.
68. 노종해, *Ibid.*, p. 143.
69. J.F.Preston, “A Notable Meeting”, *The Missionary*. Jan., 1907, p. 25; 안병동, *op. cit.*, p.24에서 재인용.
70. 〈大韓每日新報〉(1907.2.13)
71. 이종성, “부흥운동의 신학적 근거”, 『기독교사상』, 1978/9, p. 40.
72. 김영재, *op. cit.*, p. 118.
73.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기독교문사, 1981, p. 87.
74.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75. J.S.Gale, *op. cit.*
76. W.M.Baird, “The Spirit Among Pyeny Yony Students”, K.M.F., Vol.4. 1907, May. p. 66.
77. The Baptist Missionary Magazine, Vol. 88, No.2(February, 1908), p. 58;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 p 387ff 에서 재인용.
78. 곽안전, 『한국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1973, p. 128.
79. 백낙준, *op. cit.*, p. 390.
80. 길진경, *op. cit.*, p. 197ff.
81. 길진경, *Ibid.*, p. 202ff.
82. 이영현, 『한국기독교사』, 키클디아사, 1978, p. 112.
83. Mrs.W.M.Baird, *op. cit.*, p. 67ff.
84. Mrs.W.M.Baird, *Ibid.*, p. 65; 백낙준, *op. cit.*, p.389에서 재인용.
85. Mrs.W.M.Baird, “Further visiration of grace in Pyeng Yang, Korea”; 길진경, *op. cit.*, p. 369ff.
86. 서정민, *op. cit.*, p. 251ff.
87. 이덕주, “초기 개신교사에 있어서 한·중 기독교 교류”, 『한국기독교사연구』 1, 1985, p. 8ff.
88. 홍석훈, “1907년 대부흥운동의 배경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46ff.
8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989, pp. 247-266.
90. 민경배, “한국 프로테스탄티즘의 저항사”, 『한국역사와 기독교』, 대한기독교

- 사회, 1983, p. 314ff.
91. 1907년의 대부흥회 이후에 각종 기도가 계속될 뿐 아니라 민족운동에의 기독교인들의 참여가 보인다.
 92. 주재용, “한국부흥운동의 사적비판”, 『기독교사상』, 1978/9, P. 72.
 93.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3, p. 281.
 94. 본 논문의 부록의 도표 1을 참조할 것.
 95. 이철신, *op. cit.*, p. 58ff.
 96. 본 논문의 부록의 도표 1과 도표 2를 보라.
 97. 앞에서 언급한 Harid 선교사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다.
 98. 이만열,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의 전개과정”,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 지식산업사, 1981, p. 298.
 99. C.E.Sharp, “Motives for Seeking Christ”, K.M.F., Vol.2, No.10, Aug, 1906, p. 182ff.
 10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989; 이만열, “한말 기독교 사조의 양면성 시고”,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1991, pp. 246-253.
 101.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3; 서정민, “초기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의 이해”,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종로서적, 1981.
 102. 민경배, 『한국민족교회형성사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4, p. 48.
 103. 길진경, *op. cit.*, pp. 259-283.
 104. 서정민, *op. cit.*, p. 278.
 105. J.S.Gale,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1909, p. 44; 노대준, “1907년 기독교 대부흥운동의 역사적 성격”, 『한국기독교사연구』 15.16호에서 재인용.
 106. 구국기독교회가 계속 열리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완용, *op. cit.*, p. 151.
 107. 이동성, “한국기독교가 3.1독립운동에 끼친 영향”, 장신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8, p. 134.
 108. 이 시기의 일제의 기독교 인식에 관하여는 윤경로, “통감부시기 일제의 기독교정책과 성격”, 『한국 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 역민사, 1992. 참조.
 109. 김호성, 『한말 의병운동사연구』, 고려원, 1987, p. 20.
 110. 이만열, “한말 일제하 기독교 사회운동의 맥락”,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1991, p. 363.
 111. 오윤태, 『한일기독교교류사』, 혜선문화사, 1980, p. 172.
 112. 이만열, “의병운동”, 『기독교대백과사전』 12, p. 1017ff.

113. 신용하, “신민회의 독립군기지 창건운동”,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 아세아문화사, 1994, p. 103.
114.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한국사론』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73, p. 402.
115. <대한매일신보> 5-468(1907.3.21)
116. 윤경로, “105인 사건의 일연구”, 『한성사학』1, 1983, p. 23.
117. 이만열, “한국 기독교의 민족사적 의미”, 『기독교와 역사 해석』, 성광문화사, 1994, p. 80.
118. 윤경로,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 일지사, 1990, pp. 80-81.
119. 우완용, *op. cit.*, p. 141.
120. 윤경로, *Ibid.*, p. 227.
121. 필자는 앞서 언급한 이들이 대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이라는 ‘빙산’의 일각으로 본다.
122. 姜德相, 『現代史資料』25, 미즈즈書房, 1967, p. 37; 이윤상, “평안도 지방의 3.1운동”,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p. 261에서 재인용.
123. 이만열, “3.1운동에 대한 기독교사적 이해”, 『한국기독교사연구』25, 1989, p. 8.
124. 이러한 의견을 표방한 책이 한국역사연구회 편,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이다.
125.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박정신, “구한말, 일제 초기의 기독교 신학과 정치”, 『근대 한국과 기독교』, 민영사, 1997, pp. 48-51에 나와 있다.
126. 길진경, *Ibid.*, p. 259 ff
127. 이동성, *op. cit.*, p. 130ff.
128. 3.1운동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통계는 김승태, “종교인의 3.1운동 참여와 기독교의 역할”, 『한국기독교사연구』25, 1989. 참조.
129. 이만열, “3.1운동과 한국 기독교”,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1991, p. 352.
130.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초기 한국 기독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p. 246.

참고문헌

1. 길진경, 『영계 길선주』, 종로서적, 1981.
2.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2.
3. 박정신, 『근대 한국과 기독교』, 민영사, 1997.
4. 윤경로,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 일지사, 1991.
5. 이덕주, 『초기 한국 기독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6. 이만열 외,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종로서적, 1986.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988.
8. 김인수, “길선주 목사의 ‘나라사랑’ 정신에 대한 고찰”, 『솔내민경배교수회갑기념 한국교회사논총』, 민경배교수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994.
9. 성백절, “한국 초기 개신교인들의 교회와 국가 이해”, 『한국기독교사연구』21, 1988.

국

오홍철 / 전주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 경희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수료(Cand. M.A.).
성광교회 고등부 교사 및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와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 회원으로 활동.